

UGM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김XX
참가 대학	순천향대학교	파견기간	2020.11.20. – 2020.12.11
프로그램 명	The 12 th International Students Virtual Short Program		

2. UGM 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Week 1	<i>Lecture on "Resilience During the Global Pandemic"</i>
2020-11-20 수업	<p>코로나가 빚은 글로벌 팬데믹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함께 보통의 일상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회복력'과 '탄력성'에 관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올해 봄, 당시에는 몰랐지만 코로나블루를 겪으며 무기력증으로 아무 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아하고, 이전과 같은 일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습관적으로 코로나 때문이라며 허공에 책임을 묻기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전과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을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임을 배웠다.</p>
Week 2	<i>Lecture on "Coping with The Pandemic in Socioeconomic Sectors"</i>
2020-11-27 수업	<p>2주차에는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사례가 나와 반가웠고,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과 선정되어 기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산업으로 반도체와 리튬배터리 산업이 나왔는데, 항상 자주 접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깨닫지 못 했는데 덕분에 다시 보게 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야를 알게 되었다.</p> <p>2주차 주말에는 조별로 zoom을 통해 토론토 진행되었는데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와 관련하여 네 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 날도 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질문이 들어와 답을 하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에 대해 영어로 한국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재밌기도 했고, 작은 그룹이지만 우리나라를 대신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다.</p>

Week 3 Overcoming the Crisis: Learning from Institutions	
2020-12-04 수업	<p>인도네시아의 음식배달업체인 그랩, 관광과 창조경제 그리고 B2B 산업을 관리하는 위원장들이 나와 수업을 진행했다. 대부분 각 부문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어떤 면에서 협력하고, 소비자들 혹은 국민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코로나를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배웠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 더불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아이디어를 통해 시야가 한층 넓어지는 기회가 되었다.</p>
Week 4 Talkshow: Contribution to Community	
2020-12-11 수업	<p>해당 대학에서 직접 개발한 시스템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대응하며 스스로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함께 돕기 위한 대학의 프로그램에 대해 배웠다. 각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방역정책을 세워 진행하고, 개인적으로도 이 상황을 현명하고 건강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무엇보다, 누구든 각자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p>
프로그램 운영	<p>프로그램 전반과 운영진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이 프로그램 시작 이틀 전 미리 실시되었고, 그날 각 조를 배정받아 왓츠앱 채팅 어플로 그룹끼리 인사하고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매주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토요일까지 6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퀴즈를 제출했고,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대한 출석은 실시간 줌수업 참여확인뿐만 아니라 출결확인 퀴즈와 함께 진행되었다. 수업 외에도 다양한 퀴즈, 인스타그램 글쓰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고, 보다 프로그램에 주체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수업 후 바로 퀴즈를 참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영상은 추후에 올리는 등 운영진의 노력과 수고를 엿볼 수 있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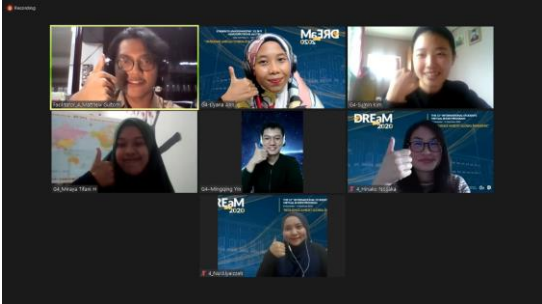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시작 전 준비사항

아무래도 현재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외신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때때로 국내 실정을 대신하여 전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현실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글로 정리하고 영어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다면 프로그램 진행에 더 깊이 참여하고 보다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본인 소감 및 평가

코로나 이슈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방안과 현재상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의 실정은 국내 뉴스로도 시시각각 전해들을 수 있고 스스로도 찾아보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인도네시아와 주변 국가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책과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다보니, 우리나라와 환경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아시아 국가 중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아시아권 국가의 학생들과 토론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았다. 우리학교에서도 이런 활동을 진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타국의 학생들과 소통하고,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

5. 사진보고서(4장 이상)

	
<p>11.20 Day 1 수업 화면캡처</p>	<p>11.27 Day 2 수업 화면캡처</p>
	
<p>11.28 그룹별 토론 후 사진</p>	<p>12.04 Day 3 수업 화면캡처</p>
	
<p>12.11 Day 4 수업 화면캡처</p>	<p>사진설명</p>